

투자처 찾아... 8년새 10배, 40兆 뭉치돈 '해외주식직구'

금융투자도 직구시대

<上> 해외주식거래 급증

지난해 해외투자 규모 사상 최대치 HTS 리뉴얼로 시스템 대폭 개선 최소·환전수수료 없애 부담 줄어

금융투자업계가 투자자의 수익 확대를 위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해외 투자에 관심이 많은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열어 주고, 수익 증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해외투자에 관심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326억 달러(약 36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 늘었다.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해외주식 결제대금이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을 리뉴얼하고, 수수료 폐지 등을 통해 고객의 해외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40조원 규모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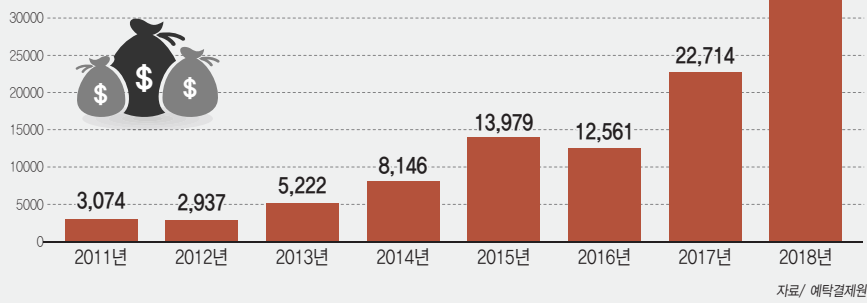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더 간편하게, 더 빠르게”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KB증권, 키움증권 등은 올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리뉴얼을 통해 해외주식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먼저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국내·해외 ‘통합 주문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증거금을 하나로 통합 관리해 국내 및 해외주

외화주식 결제대금 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예탁결제원

식 간 교차매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지난달 14일부터 KB증권은 자체의 외국환거래(FX) 시스템을 통해 해외주식거래시 실시간 환전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를 통해 KB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국가 간 교차거래시에도 별도의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고객이 주문한 시점의 실시간 기준 환율을 적용해 투자자들이 받는 환율변동의 위험을 없앴다.

키움증권은 그동안 나라별로 다른 HTS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해외주식 통합 HTS ‘영웅문 글로벌(Global)’ 베타버전을 지난 18일 오픈했다. 해당 서비스는 원화, 외화 동시 표기, 호가의 시인성을 높이고, 미국주식 배당주 가치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배당종합 화면 등을 제공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역시 18일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결제일과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글로벌 논스톱 매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가 간 주식 거래시 통화와 결제 일자가 달라 통상 3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던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간의 결제일을 맞출 필요 없이 당일엔 한국

을 비롯한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등 5개국의 모든 주식을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됐다.

◆‘최초’ 내걸고 경쟁 치열

지난해까지도 해외주식 거래 시 매매 금액과 상관없이 최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고객이 온라인으로 미국 주식을 3000달러어치를

사려고 해도 거래 수수료(0.25%)를 적용한 7.5달러가 아닌 최소수수료인 10달러를 내야 했다. 하지만 증권사가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징수하던 최소수수료를 잇따라 폐지하면서 소매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가장 먼저 미국·중국·홍콩·일본 주식 매매 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수수료를 없앴다. 이어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이 최소수수료 폐지에 동참했으며 지난 8일 KB증권도 미국·중국·홍콩·일본 등의 주식 거래에 대한 최소수수료를 일괄 폐지했다.

환전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삼성증권·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 등은 통합증권서비스를 도입해 별도의 환전 없이 바로 거래 주문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통합증권은 보유하고 있는 원화나 외화뿐만 아니라

당일 매도한 국내주식자금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KB증권은 자체 FX 시스템을 통해 환전 수수료 부담을 완전히 없앴다.

현재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결제일 동안 매수 부족금액이 발생하면 NH투자증권이 매수를 먼저 체결하고 매도결제일에 발생된 부족금액을 자동으로 변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책정된 수수료는 연 6.5%지만 당분간 결제일 차이로 발생하는 미수금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해외주식 투자엔 국내주식 투자와 달리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로 남긴 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한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코스피, 외국인 덕에 날았다

2230선 코 앞... 1달 만에 최고치

코스피지수가 외국인의 사자에 힘입어 2230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13포인트(1.09%) 오른 2229.76에 거래를 마감했다. 증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8일(2,253.83) 이후 11달여 만의 최고치다.

이날 상승은 외국인이 이끌었다. 외국인 유가증권시장에서만 무려 430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는 지난 1월25일(8214억원) 이후 외국인 하루 순매수 금액

으로는 최대 규모다.

증권전문가들은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 양해각서(MOU)에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이어간 것이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1.96%)와 SK하이닉스(1.63%), LG화학(0.38%), 현대차(1.26%), 삼성바이오로직스(0.13%), POSCO(1.12%) 등이 올랐고 셀트리온(-0.47%) 등은 내렸다.



20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가 24.13포인트(1.09%) 오른 2229.76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달러당 4.7원 내린 1123.5원에 마감했다. /김민호 기자 kmh@

재계, 걸으론 “일단 환영” 속으론 “...”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합의

노사간 입장차 여전히... 현안 해결 부담

노사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재계는 쉽게 웃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초 요구했던 1년보다 절반에 불과한 데다, 노사간 입장차도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9일 오후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상으로 늘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신 다른 기간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맞춰야 한다. 앞으로 국회에 제출

된 관련법 개정 논의 후 시행될 예정이며, 11시간 연속 휴가시간 보장이 조건으로 추가됐다.

재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사 합의에 의미를 부여하며 노사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경총도 노사 합의를 다행이라고 평가하며,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당초 선진국 수준인 1년을 요구해왔던 상황인데, 합의 결과가 절반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서 기대 효과도 반감됐기 때문이다.

복잡한 정계 분위기도 부담이다. 당장 여야 갈등으로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해지면서 시행 일정도 미지수다. 정의당

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과로사 합법화라며 비판하고 나섰으며, 민주노총은 합의에 불복하고 3월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산적한 노동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부담이다. 당장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안을 20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한국노총 요청으로 연기했다. 조만간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논의가 시급한 사안이다.

그 밖에도 재계는 지난 해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비롯한 임금협 이슈와 포괄임금제 폐지 등 여러가지 현안 논의를 경사노위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양대 노조에 예민한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제 합의를



서로 한발씩 물러서 탄력근로제에 합의에 성공한 경노사위. 그러나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과에 추후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이어진다. /연합뉴스

이루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합의는 노사정이 한발씩 양보해 답을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양측 다 불만이 크다

는 문제도 있다”며 “다른 현안에서도 합의점을 찾는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웅 기자 juk@

독립운동의 정신 담은 ‘각양각색’ 캐치프레이즈 등장

>> 1면 “지금 내가 하는 일...”서 계속

캠페인·기부행사 펼쳐며

3.1운동의 정신 이어가

실제 대표의 모습을 모델 삼아,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작은 독립운동이라 믿는다. 나는 오늘도 태극기를 흔드는 마음으

로 하루를 연다”의 뜻을 담은 광고 문구를 실었다.

주요 금융지주들도 동참했다. KB금융그룹은 유관순 열사와 상하이 임시정부의 정신을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캐치프레이즈와 연결했다. “열여섯 어린 소녀의 작은 외침이 3.1만세운동의 거대한 함성으로 상하이 좁은 골목에서

시작한 꿈이, 독립운동의 거대한 교두보로, 그 작은 힘들이 모여 오늘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KB금융그룹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청년당이 전파한 희망을 내세워 ‘함께 시작하는 희망의 100년, Hope together’라는 캠페인 광고

를 시작했다.

신한청년당은 1918년 상하이에 조직한 청년들의 항일운동 단체다. 1919년 김규식 선생이 신한청년당의 민족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건너가 대한민국 독립의지가 담긴 독립청원서를 전달했고, 임시정부 설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신한금융은 “희망이 없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조국을 생각했던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광고 문구를 내세웠다.

/안상미·신원식 기자 hug@



/BGF 리테일